

## 베드로전서 강해

### 고난과 영광(벘전4:12~19)

반태호 목사 / 2000. 9

베드로 사도는 핍박과 박해 때에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계속해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어찌하여 악인들이 더 잘 삽니까? 어찌하여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합니까?’

#### 고난을 즐겨워하십시오

베드로 자신도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받으신 후에 비로소 십자가를 가르치십니다. ‘인자는 죽으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펄쩍 뛰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어떻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베드로도 이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도 잘못된 일인줄 알았더니 그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지나보내고서야 아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의미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믿음을 지키고 부흥할수록 불같은 시험이 왔지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같은 시험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교회가 무너지거나 복음이 막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교회는 늘어나고 복음은 더욱 능력있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견디기 힘들지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진리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진리를 선택

하면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따라간다고 세상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할 뿐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고난을 즐기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무릎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근원을 알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저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인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 영광의 상처

고난을 받는 것이 힘들지만, 그 고난은 의미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영원히 사는 일, 생명을 나누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뛰어든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을 때는 바로 고난의 때였습니다. 편하고 좋을 때 지냈던 사람은 가깝게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함께 고생했던 사람,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는 평생 가깝게 지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주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편할 때보다는 힘들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고난은 유익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받을 놀라운 상급이 있다고 13절은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은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영광의 그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이 옵니다.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라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회의호식했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서는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나라를 다시 찾았을 때 해방의 기쁨과 함께 그들의 고난이 영광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모든 수고와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주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상급이 되고 훈장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

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만 받겠다는 것은 양체중의 양체입니다. ‘고난은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존귀는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사람은 악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희생, 고생, 핍박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듯이 고난과 영광은 함께 있습니다. 쌍둥이와 같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얻었던 교훈을 알려줍니다. ‘예전에는 고난을 이상히 여겨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고 있다.’ 그는 영원한 상급을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달라졌습니다.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욕을 받는 복된 자

고난 자체는 즐거워할 수 없지만, 믿음을 지키고 육체의 뜻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 때, 불시힘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 두번째 이유가 14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는 예수님때문에 순교하거나 핍박을 받는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복을 받은 때입니다. 목회자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고생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접을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편안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로 맺은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천국에 갈 때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다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두 아들을 여순반란사건때 잃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장례식 때 손목사님은 ‘감사할 아홉 가지 이유’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남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감사합니다.’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복음, 예수님을 위해 손해를 볼 수만 있다면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의를 위해 핍박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영원한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을 것 같다고 하고, 두려워서 어쩔줄 몰라 할 때에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보는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뻐했습니다.(합 3:16~18) 상황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 넘치는 은혜

세상 사람들의 신앙은 '고난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편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마땅히 치뤄야 할 고난도, 고생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겁해 집니다. 비굴해 집니다. 술수를 써야 하고, 거짓을 말해야 하고, 뇌물을 써야 합니다. 정당하게 치르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일이 내게 부끄러움으로 돌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땅히 치르어야 할 땀과 눈물과 수고와 희생을 치르지 않으려고 해서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은 막무가내로 고생을 시키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할 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두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더욱 친근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비상시에는 비상한 은혜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록 더욱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 앉아 있을 때와 선교지에 갔을 때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복음을 위해 헌신해 보십시오.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섬기면 섬김의 기쁨과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결코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

리에게 넘친 것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의 영이 함께 계셔서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깊은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테반이 순교할 때의 모습을 사도행전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영광의 영이 그 위에 계셔서 순교할 힘을 주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줍니다.

## 고난은 기회다

15,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은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중요한 한 마디를 남깁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괜히 쓸데없이 나서서 고난을 당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남의 일 간섭하시는 일을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남을 비판하고 감독할 여유가 없습니다. 나를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은 티와 같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권면은 베드로의 아픈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았더라면, 순교할 자리에서 순교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에는 베드로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짬은 순교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가 고난을 부끄러워 하다가 더 큰 부끄러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성도들에게 고난 받을 때 부끄러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에 오히려 뒤로 물러 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계속해서 가고, 믿음을 지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놀랍니다.

우리는 자신이 성공하고, 자녀가 남이 가지 못한 대학에 가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착각합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영광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면 세상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별

로 없습니다. 오히려 시기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세상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돈을 많이 벌니다. 따라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콧방귀 쫓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복은 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고난을 감수하지 못합니다. 고난 앞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고난 앞에서 흔들립니다. 고난이 오면 나쁜 성격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더욱 굳세어지고, 강해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찬양하는 것을 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번영의 때보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더 많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 **심판을 대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영원한 심판을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17,18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부터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화작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믿는 자를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심판합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우리에게 대한 심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향한 심판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만드는 정화작업입니다. 반면 세상을 향한 심판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입니다.

미국과 같이 큰 나라에서 불이 나면 견제를 수가 없습니다. 큰 불이 나면 불은 달리는 말보다 빨리 번져 나갑니다. 그럴 때 그 불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불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큰 불이 닳쳤을 때 이미 그 근방이 타버렸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영원한

멸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때로는 순교의 잔을 마시게 하고 불같은 시험을 받게 하신다면, 끝까지 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의 심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편해 보여도 편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19절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찌어다

이것이 고난을 받는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끝까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포기 하지 않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돌보십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도, 스테반도 마지막 순간을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자녀들을 맡기십시오. 가족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도 고난이 있지만  
불같은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출처 : 온누리신문